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포로로 지내는 것이 아닌, 참된 구원자이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가장 불행한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은혜로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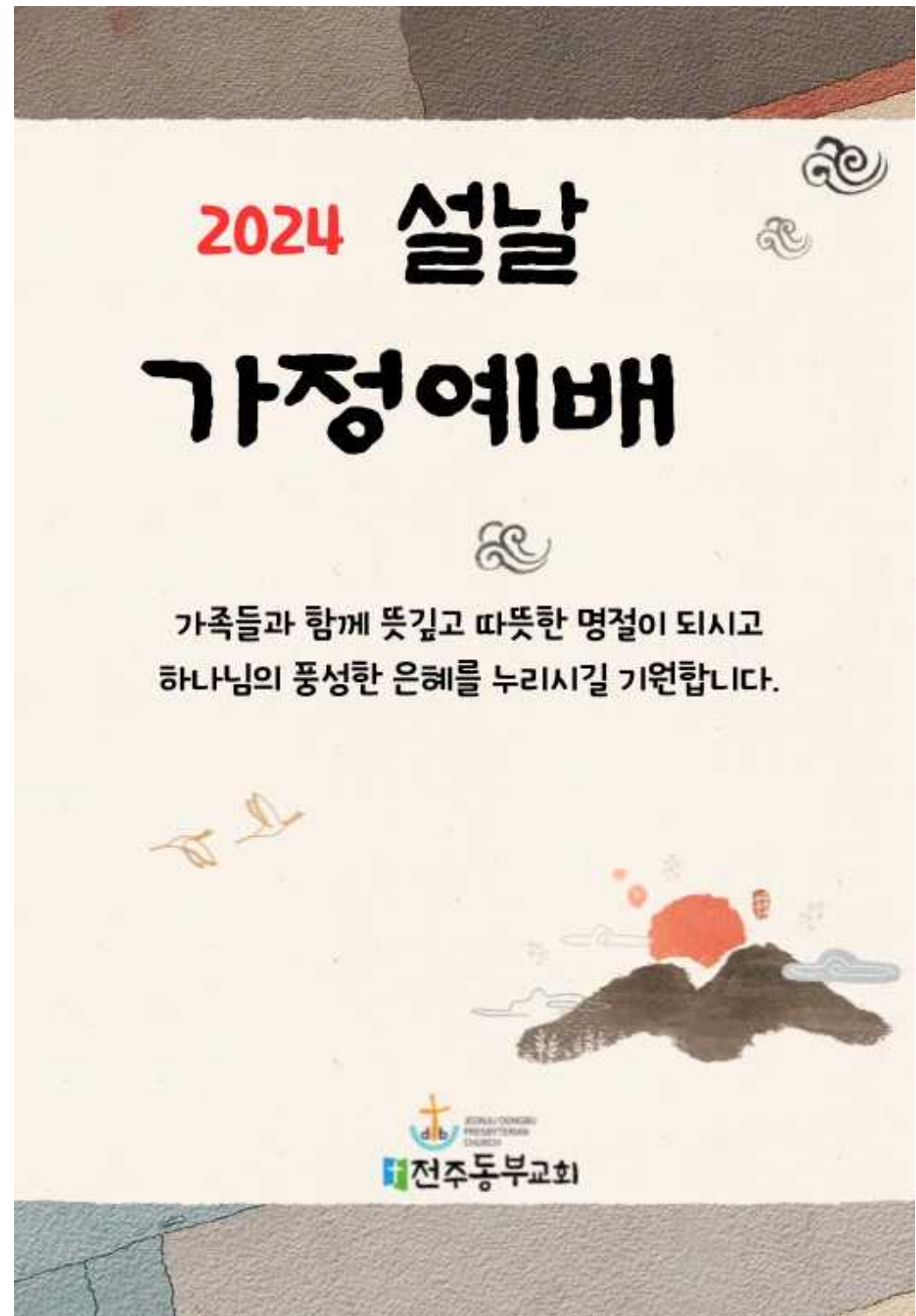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아닌 상황 너머에 계시는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2.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10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은 무엇을 따라갔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실 참 목자는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군대와 돈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엔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는 세상의 포로가 될 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상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예배의 감격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가 정 예 배 순 서

목도

신앙고백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3>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기도

(가작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이사야 49장 8-10절

-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혈벚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설교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나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동행과 은혜와 평강의 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기도제
목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일 434)

F. J. Crosby, 1875

보통으로

All the way my Saviour leads me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답주 4:7)

인도와 보호
ALL THE WAY: 8.7.8.7.8.7.8.7.
R. Lowry, 1875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 에 있 는 긍휼 어 찌 의 심 하 리 요
어 려 운 사 랑 어 찌 큰 지 말 로 할 수 없 도 다

믿 음 으 로 사 는 자 는 하 늘 위 로 받 게 네
나 는 심 하 고 단 하 고 영 혼 하 나 라 갈 때 에
성 령 화 받 은 영 혼 하 늘 나 라 갈 때 에

무 슌 일 을 만 나 든 지 만 사 형 통 하 리 라
나의 앞 에 반 석 에 서 샘 물 나 게 하 시 네
영 영 부 를 나의 찬 송 예수 인 도 하 셧 네

무 슌 일 을 만 나 든 지 만 사 형 통 하 리 라
나의 앞 에 반 석 에 서 샘 물 나 게 하 시 네 아 멘